(1) 第 106 號 (昭和26年12月4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每水曜日發行) 週刊 복음신문 1953年 1 月 13 日(水) (定價1部10圓)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 2 — 4
振替口座 東京 182538
電話 神田 (29) 2623 番
編集兼發行人 吳九台
主筆 田榮澤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聖句

너희 눈앞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갈라디아 3:1

國立國會圖書館 昭和 29.1.19 寄贈 支部上野圖書館

一九五四年國際政局의展望
美國이主導權掌握?

[illegible] 戰爭、소위 冷戰[illegible] 人類는 [illegible] 그러나 原子兵器 또는 水素爆[illegible] 그 [illegible] 一九五四年 [illegible] 방향 [illegible] 그 [illegible] 東亞에서는 韓國問題、[illegible] 中共國連加盟問題等이 그 表面에 나타난것이있으나 內面에는 오히려 美國은 東歐의 소連衛星國家의 民族熱에 기대한바 있어 유고오化를 기다리는 政策이었다고 볼수있으며、소련은 西歐의 防衛共同體의 結成을 갖은 수단으로 妨害해왔다 中共問題는 美英 兩國間에서도 意見이 對立되어왔다 특히 近東、東南亞 諸民族主義國家에 對한 政策은 主로 南陣營의 소위 바란스 政策이었던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政策의 배후에는 말할것도 없이 이제까지의 原子力兵器貯藏比率에 따른 政策이었던것은 말할것도 없다 [illegible] 그 [illegible] 原子力禁止案까지도 討議할 [illegible] 意를 가지고 伯林四國外相會議를 開催하였다 한편 美國은 이 새로운 時期에 對處할만큼 [illegible] 防衛體制를 刷新하여 軍備를 實施하는 한편 空軍에 依한 防衛强化를 [illegible] 行한것이다。 [illegible] 아니라 西歐諸國共同體 (E.D.C) 의 [illegible] 한 [illegible] 長官은、强力한 [illegible] 도 이를 재속하는등、또한 中共 및 韓國 [illegible] 에 있어서도 만일 中共이 [illegible] 實히 韓國과 佛印을、侵略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illegible] 加盟을 기어히 반대하지는 않을 [illegible] 이라는 風說도 있다 [illegible] 美國은 彈力性있는 적극정책을 가지고 今年의 國際政局에 있어서 主導權을 가지고 人類社會의 繁榮이나、福祉이나의 한가지를 힘있게 결정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七년부터 開催된 四國會議의 결과에 그 방향과 成敗의 거지반이 달려있다고 보아도 無妨할것이다。 (홍)

온는二十二日밤에釋放될
反共捕虜 二一八三名

韓國休戰의 協定대로 오는 二十二日 밤까지는 지금 印度部隊가 管理하고있는 反共捕虜들중 歸國의 說諭을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합계 三千二百十四名이었으나 歸國을 희망한 者는 겨우 百三十六名이었다 一方 共產側에서는 說諭期間의 延長을 再三주장하였으나、中立國管理委員會에서는 지난 十二月二十三日 最後의 說諭를 마지막으로 中立國管理를 解除하고 民間人의 자격으로 印度部隊에 移管되었다고 한다 이 反共捕虜들은 오는 二十二日 밤까지에는 釋放할것

[illegible] 인데 韓國에서는 이에 대한 高潮의 [illegible] 받아드리기 爲해 그 [illegible] 案內를 爲해 [illegible] 來署하였다고 한다。 捕虜의 [illegible] 決算의 數字는 다음과 같다。

反共捕虜

中立國部隊管理 總數

中共兵	一四、七〇二名
北韓兵	七、八九〇名
合計	二二、五九二名

說諭後 [illegible] 反共捕虜

中共兵	二、三〇〇名
北韓兵	一、二一一名
合計	三、五一一名

說諭받은 반고 歸國希望者

中共兵	九〇名
北韓兵	四六名
合計	一三六名

說諭後 自願歸國希望者

中共兵	一四五名
北韓兵	八五名
合計	二三〇名

中立國管理中行方不明者

中共兵	一名
北韓兵	一〇名
合計	一一名

釋放될 反共捕虜

中共兵	一四、四五四名
北韓兵	七、七二九名
合計	二二、一八三名

社說

戰爭이냐 平和냐
—평화의 기원—

新年에 들어서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날것이냐 혹은 세계가 차차 평화의 길로 나아갈것이냐 하는것이다 이것은 특히 무서운 전장의 화를 당하고 아직도 전운(戰雲)이 깨끗이 걷어졌다고 할수없는 한국에 태어난 우리들의 큰 관심거리가 아닐수없다。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싸움터는 어디가 될것인가 하는것도 우리의 중대한 관심거리지만 그보다도은 세계사람의 머리에서 떠나지않는 큰 문제는 「원자력전쟁(原子力戰爭)」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장 짧은 기간안에 끝날것이나 동시에 그 피해는 지극히 클것이라는것은 이차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둘로 갈라지며 끝없는 「원폭제조」의 경쟁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만 六十억불이란 굉장한 자금을 원폭제조와 연구에 쓰고있다는 사실로 보아 알수있다。

만일에 이 원폭전쟁이 시작됨다면 그야말로 「세계의 끝날」이 곧 오리라고 하는것은 누구나 잘 아는것이다 그럼데 二大세력의 대립과 냉전이 점점 심각해가고 있는 중에 지난해 十二月八日에 뉴욕 유엔총회에서 아이젠하워대통령이 내놓은 원자력의 국제관리와 평화적이용(平和的利用)에 대한 제안은 마치 검은 구름이 드리운 땅위에 문득 붉은 양광(陽光)이 비쳐오는것을 보는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만일에 세계를 살륙과 멸망의 수라장으로 화하려는 원자력을 저마다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지않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게되고 따라서 평화의 「에네루기」에 쓴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향해 달리던 세계가 평화의 꽃동산으로 변하는것이라고 할수있으니 이것은 인류역사와 그 운명을 위하여 자못 중대한 문제라고 할수있다。

생각컨데 아대통령의 이 제안은 진실로 한 사람이나 몇사람의 대리에서 나온 우연한 일이 아니요 어리석다면 극히 어리석으나 지혜있다면 극히 지혜롭다고 할수있는 사람의 예지와 그 경험에서 나온 인류경영의 운동의 첫걸음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경륜의 서광이라고 믿을수있다。

서로 믿지못하는 치지라 아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하여 쏘련에서 의문과 질시의 눈으로 보고있고 일단 거부의 태도를 보인것은 당연한일이나 세계의 대다수의 민주진영이 찬동하고 소련도 최근에 서로 의논할 용의가 있는것을 보이고 또 만일에 마렌코후 현 수상이 一九五二년 공산당대회에서 「쏘련은 원자력을 평화목적에 이용하기에 주력을 부어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선언한것이 참말이라면、사실에 있어서 인류가 평화를 바라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잘 알수있다。

만일에 세계인류가 한번 더 크게 경성하고 그리고 자유진영이 다같이 과거의 잘못을 깨달아서 독력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수단

隨想

맑은 물줄기 거슬려가는 용기

主筆

조금이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더구나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친구는 세상이 너머도 썩어지고, 부정한일 몰염치의 일이 너머 많은것을 보고 기가 막이게 생각하다。

우리네 젊은이 그중에도 어리사람으로서 차차 철이 나고 세상 내막을 알게되면 특히 식자계급 지도자계급의 부패에 놀래고 반항심을 가지고 실망과 번민에 빠진다。

그리하여 결국 웬만한 사람이 부닥치는 결론의 골자기는 「할수 없다 세상이 다 그런다」이런 생각은 망할 사회의 장본이다 人格이 있고 정신이 살아 있는 사람을 남들이 간다고 덮어놓고 가지않고 저갈을길 찾아서 가는것이다。

산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간다 그러나 물을 따라서 떠나려가는 것은 죽은 고기다。

밖에서는 신자와 교회에 대하여 기대가 크다 사회 정화운동의 중심이 되여 주기를 바란다, 흐리고 더러운 조류를 따라가지말고 맑은 물을 찾아서 용감스럽게 거슬려 올라가자, 다 흐리고 다 썩어진 세상에서도 한줄기 맑은 물줄기가 되자。

결 나만 깨끗하면 무얼하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럭저럭 남이 가는대로 밀려내려간다。실상은 이것이 큰일이다 개끗하던 사람 어린이들까지 흐린물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큰 일이다。

남이 다 간다고 따라가지말라 남이 가는대로 따라가기는 쉽다 그러나 남이 안 가는 길을 혼자서 가기는 어렵다 남이 가는길을 거슬려가기는 더구나 어렵기는 어렵다 그러나 「옛물이 흐리니」할수 없다 나 혼자 뛰쳐보았자 별수 없

親共捕虜

中立國部隊管理總數

韓國兵 三三五名

美國兵 二三名

英國兵 一名

合計 三五九名

歸國希望者

韓國兵 七名

美國兵 一名

合計 八名

☆ ☆ ☆

會談政治

豫備會談再開交涉

捕虜釋放을앞두고禱祈한表情

中止중에 있는 政治會議予備會談은 쌍方의 非難言明으로 中止된채 있으나, 한편 來二十二日밤에 釋放될 捕虜의 引受를 앞두고 印度의 態度와도 不明랑한 공기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美國은 대단한 노력으로 이 予備會談을 再開하여 緊장된 공기를 완化하려고 美國代表側은 秘密리에 兩方의 非難을 取消하고 會談再開를 교섭하였다고 한다 결국 予備會談은 再開될것이나 韓國의 意思와 合하는 會談이 될지는 의문이다。

필립핀公使 金永琦氏赴任

필립핀 駐在公使로 새로 任命을 받아 赴任途中인 金永琦氏는 지난 一月五日 우리 YMCA와本社를訪問하고 당일로 마닐라로 향하여 出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하였다。

나는 지금으로 약 三十年前에 이곳에서 지내면서 우리 YMCA일을 본 일도 있었다 그때에 金貞植先生이 총무로 계셨고 그 뒤에 白南勳氏가 계셨고 그 뒤에 林鍾純牧師, 吳基善牧師가 계실때이다 나는 그 후에 하와이에 가서 살았고 미국 본토에 가서 뽀스톤 대학을 마치고 지금까지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번에 大統領께서 부르셔서 필립핀公使로 가라는 命令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본국에 왔다가 가는 길이다 오라간만에 이곳에 와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敎會와 여러 친구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가니 매우 섭섭한 뜻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일본에 계시는 분으로 필립핀에 오시면 할수 있는데로 편의를 보려고 한다

新年懸賞論文募集

期限延期

本社에서 懸賞論文을 募集하기로 하고 이를 發表하였으나 期限이 너머 促急하고 문제의 구속을 받아서 應募者가 적기 때문에 이를 유감으로 여겨서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기도 문제도 얼마큼 자유롭게 하기로 하였으니 독자는 힘써 應募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一、期限 韓國에 關한 問題로 自由選擇

二、期限 二月末日까지

一、字數 四百字 十장 (例, 韓國의統一과復興。 李承晩以後의韓國。

福音新聞社

人事

○金根培氏(金學根改名) 十二月十二日에 서울에서 父親喪을 當하여 廿六日午後三時에 在日YMCA에서 李도氏을 行함

○金우현牧師(在日YMCA總務) 名古屋과 大阪, 京都의 新年 奎經會의 講演을 마치고 지난七日歸任

○吳允台牧師(在日基督敎總會長 東京敎會牧師) 同上

○白樂준博士(大統領特使로) 東南亞細亞諸國을 訪問하고 歸國途中에 지난十一日 東京着

聲望

어떤 믿음만한 이의 말을 믿은 즉 이곳의 어떤 공과대학에 우리 학생이 있는데 어떤 우리 학생이 그 대학학강신에서 학장과 대화할때에, 학장이 그 학생더러 「기미(其)」라고 하였다고 학장에게 대해서도 같이 「기미」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학장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아니했다가 교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말이 학생들 귀에 들어가서 「조선학생놈들 고야하니 혼 내 주어야겠다」한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예의상으로 보나, 도덕상으로 보나 잘못이다 독립국민으로서의 모욕을 받았다고 그랬는지 대학생의 자격을 찾노라고 그랬는지 모르거니와, 매우 경솔한 일이요 큰 실수라고 할수있다。

○이러한것은 한 개인의 일, 개인의 실수라기 보다도 민족적 체면에 관계되는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사람의 감정이 예민한 이때에 변변치못한 일로 남의 감정을 살 필요가 없지않은가。

새해의 抱負와 希望

희망의 새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가지가지 한없이 많거니와, 더구나 이 나라에 나그네 된 재일 동포의 구령 사업에 매진하여야 할 재일 한국 기독교계 각 기관에서는 이 해의 활동할 도부와 희망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傳道運動과 傳道基金募集에 主力

在日大韓基督敎 總會長 吳允台

새해에 우리 총회로서 할일은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보나 재일교포의 긴박한 사정으로 보나 첫째로 전도에 주력할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총회에 있어서도가장 중요한 과제로 논의된 것이어니와 금년에는 이것을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에 노력할것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모든 총회원과 모든 신자들은 각각 개인전도에 힘 쓰고 특히 불신자가정심방에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서전도로는 우리 「복음신문」이란 훌륭한 기관이 있으며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과 희망이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원조와 이용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우리 교포에 적당한 전도책자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단전도와 집회에 더 힘을 쓰기로 하되 내용있고 성실하고도 힘있는 설교가 요구되며 특히 성경연구에 주력하기를 기할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긴박한 전도운동을 힘있게 취진시키기 위하여는 전도자금이 필요하므로 작년 총회에 자립전도 자금으로 二백만원을 모집하는 운동을 취진하기로 결의한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인데 금년에는 우리 총회가 총동원하고 총역량을 집중하여 이 운동을 실행하며 전개할것입니다

먼저 이 운동을 위하여 우리들은 개인개인으로 교회로서 기도해 힘쓰기를 바라고 우리 이미 작정한 모집운동 기간인 四월, 五월에는 우리 모든 총회원과 교우들은 주님께 맡은 사명을 다하리라는 열심으로 또 우리 교포의 행복과 운명을 근심하는 충정으로 만사를 제하고 최선의 정성을 다하기를 기하는 바입니다。

「나부터 한다 최선을 다한다」하는 정신과 노력으로 나가면 될줄 압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시대에 전도자금을 위하여 반지와 시계를 내놓고 집을 팔아내던 그 열이 일어나야 될줄 압니다。

在日學生들의 救國熱誠에 期待함

在日韓國基督敎 青年會總務 金禹鉉

새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새 계획이 없읍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새것이 어디 있읍니까? 새해라고 이름 지은것도 전에 있던 묵은 날을 연장하는 것뿐이니,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연장하면 또 한해를 보낼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실행성이 박약한 새 계획을 세우기도 겁이 납니다 아주 소극적이라고 하실는지 모르나 전에 하던 일이 또 한 해 계속되면 큰 은혜가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옛날 일을 회고해서 마음에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것을 계획이라고 해도 좋다면, 一九一九년 三一운동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이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할것없이 그때 조선학생이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어 모여서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애쓰던 그때 그러한 학생, 그러한 젊은이들의 심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지금 여기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이 그래도 다 수효가 못합니까 인물들이 못합니까? 재주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 마음 쓰기에 달렸는데 그게 그런게 어렵군요 국가 민족의 운명이 한 몸에 지워진 젊은 학도들이 조국재건을 염원에 두고 YMCA를 중심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먼저 타고난 양심을 바로잡고 고상한 인격 수양을 힘써서 구국(救國)의 희망이 두터워져야 하겠는데 닥쳐올 연말에 가서 다만 공상이 되고 말아서는 암울한것입니다 우리 YMCA가 꼭 이 염원은 성취해야 하겠읍니다。

修養會等行事을 通하여 强力히 推進

在日大韓基督敎青年會 連合會中央委員會代表委員 南宮 寔

거년 十一月二十二日 우리 면려청년회 연합회 중앙위원회가 결정된 것은 그 자체가 오는 새해 곧 이 해에 교회 청년의 해야 할 많은 과제와 임무를 진것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면려청년회 연합회 중앙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중앙 집권적인 명령 체제를 가진 기관이 아니고 한 의회 제도로 된 기관이므로, 금년에는 우리 전국 면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실시하겠다고 하순에는 중앙위원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그 중앙위원회에서는 각 지방별로 열린 회의에서 얻은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전국 공사 김용주씨와 동경교회 오윤태목사와 최근 본국서 온 정윤 장로외 동회 이사제씨가 뜻뜻이 피운 장작불을 가운데 두고 화기가 충만한중에 둘러앉아서 환영 환담의 자리를 베풀었다。

이사장 대리인 봉사주필 전영택목사의 사회로 본국 란스델일씨를 소개하고 이인영군 김신영양 정영자양의 음악순사가 있는뒤에 김옥남이사의 어린 딸의 한국 무용은 주빈과 일동을 자못 만족케 하였다 계속하여 김일천군의 작품인 사진「시련」을 예물로 진정하고 장리욱박사가 환영사를 한 뒤에 주빈 란스데일씨의 간단한 답사의 말씀을 듣고 기념사진을 찍고 폐회하였다。

씨는 감격한 어조로 요지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나는 한국YMCA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질레트씨 반하트씨등 몇분과 사귄 일은 있으나 친히 한국 친구를 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니, 벌서 나는 한국에 간것같이 느껴진다 지금 YMCA 총무 김우현목사를 여러분이 협력하여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몇날뒤에 여러분의 본국에 갈터인데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반가히 대하니 나는 매우 기쁘다。

(국제YMCA총무로 피임된 알버트·란스델씨가 이번에 일본 바귀오에서 모인 YMCA아세아 지도자 협의회 환영회)

在日韓國YMCA主催 國際YMCA總務란스델氏勸迎會

새로 국제 YMCA총무로 피임된 알버트·란스델씨가 이번에 일본 바귀오에서 모인 YMCA아세아 지도자 협의회에 참석한 뒤에 아시아 각국의 YMCA운동을 시찰하는 길에 지난 十二月十八日에 당지에 내착하여 우선 지난 二十四日 아침에 재일한국YMCA를 방문하였고 그동안 일본 각지의 YMCA운동을 시찰하고 지난 二十八日에는 한국으로 향하였는데 재일한국YMCA에서는 지난 二十七日 오후四時에 동씨를 청하여 환영 다과회를 열었다

동 환영회에는 주빈 란스델 일씨를 따라 참석한 일본YMCA 평 협동총무 헤그씨외에 동 학생부 간사 롱씨와 부총무 나가이씨가 있었고 한국측으로는 전서울대학총장 장리욱박사와 전 공사 김용주씨와 동경교회 오윤태목사와 최근 본국서 온 정윤 장로외 동회 이사제씨가 뜻뜻이 피운 장작불을 가운데 두고 화기가 충만한중에 둘러앉아서 환영 환담의 자리를 베풀었다。

이사장 대리인 봉사주필 전영택목사의 사회로 본국 란스델일씨를 소개하고 이인영군 김신영양 정영자양의 음악순사가 있는뒤에 김옥남이사의 어린 딸의 한국 무용은 주빈과 일동을 자못 만족케 하였다 계속하여 김일천군의 작품인 사진「시련」을 예물로 진정하고 장리욱박사가 환영사를 한 뒤에 주빈 란스데일씨의 간단한 답사의 말씀을 듣고 기념사진을 찍고 폐회하였다。

씨는 감격한 어조로 요지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나는 한국YMCA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질레트씨 반하트씨등 몇분과 사귄 일은 있으나 친히 한국 친구를 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니, 벌서 나는 한국에 간것같이 느껴진다 지금 YMCA 총무 김우현목사를 여러분이 협력하여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몇날뒤에 여러분의 본국에 갈터인데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반가히 대하니 나는 매우 기쁘다。

한글 簡素化 풀어쓰기가

去年四月二十七日 國務總理訓令으로 管下에 示達된 한글간소화 문제는 國務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十여차의 회의에서 수많은 한글간소화 대안을 검토한 바, 박종화 씨의 제출한 한글 풀어쓰기案을 분과 위원회로서는 최상의 안이라는 결정을 짓고 지난 十二月二十一日동분과 위원회의를 끝마쳤다고 한다。

교포 계몽 운동을 전개하자

장 효

일본에 있는 나의 한글 동지 여러분! 이 해가 귀하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 있는 해가 되기를 빕니다. 내가 여기서 한글 동지라 함은 한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만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어머니의 말인 한글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 바로 알고 쓰기에 힘쓰며 나아가서는 남에게 가르쳐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게 하려는 뜻을 같이 하는 이를 가리킴입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하고 값있는 일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손으로 몸소 하지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남의 땅에 머물러 있는 이 겨레가 사람답게 살기도 다만 자기의 말과 글을 바로 알고 쓰는데 비롯할 것입니다. 이 일은 딱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겨레의 놓여있는 현상이 어떠합니까?

저 중국(中國)을 보십시오 국민 정부가 하지않던 농민 「브나로드」운동을 공산당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필경 그들 공산당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운동을 겸하여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으로만 독립이니, 통일이니 부르짖지 말고 몸소 나서서 교포에 대한 계몽운동 곧 「브나로드」운동을 한 후에 다른 것을 합시다.

나와 뜻을 같이한 나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사양하거나 미루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에게 계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여러분의 앞은 족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알게 합시다 야학(夜學)이나 강습회를 엽시다. 자기보다 더 아는 사람에게서 배우기에 힘쓰고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가르치기 힘씁시다. 감사가 없으면 뜻이 있는 젊은이를 중앙(東京)에 보내어 단기간 양성이라도 받게 합시다. 그럴수도 없으면 이 신문의 「한글 교실」이라도 이용합시다. 나는 「한글 교실」의 원고를 손쉽게 어디서 배끼거나 아는 대로만 편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동포의 현상에 비추어 우선 남을 가르치려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시급히 고갑을 면하기 위하여 좁은 자리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따로 교재를 공급할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해에는 우리의 이 한글 보급운동에 큰 거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는 最上案

分科委서 採擇

이 품어쓰기案을 最上案이라고 決定한 것은 한글의 간소화의 종국적 귀착점이라는 것과, 또 한글 간소화(簡素化)에는 품어쓰기 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일반은 보고 있는데 품어쓰기 실시는 먼 將來의 일일 것이며 결국은 現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방식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하여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확립될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결정에 따라 금년은 좀더 강력한 청년의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오는 여름에 열릴 하기전국청년수양회에서는 「聖書와 現代人」이란 主題를 청년들의 열의가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 면려청년회 연합회 중앙위원회의 근본 목적은 각교회의 개개의 면청을 가로 세로 연격시키며,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특히 총회의 청년국(국장 김원치목사)과 긴밀한 연락, 협의로써 이상 모든 행사를 통하여 재일 한국기독교 교회청년의 씩씩한 움직임이 이 해에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熊本教會新築

크리스머스에 入堂式

九州熊本市白川畔에 新築基礎工事중이던 熊本教會 建築工事는 지난 가을의 同지방 水害로 많은 피해를 입어 그 進行을 우려하고 있던바 그후 동교회 안영준목사와 교우 일동의 노력으로 모든 困難을 극복하고 順調로히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지난 二十五日 크리스머스날 入堂식을 거행하였다한다.

同교회 신축지는 熊本驛 가까이 白川이라는 요지에 있으며, 이 새 예배당 신축은 교우는 물론 同지방 재류 일반 동포들에게 많은 감명과 기대를 주어 앞으로 同교회의 대발전이 기대된다고 한다.

廣島傳道의早速實現을呼訴함

下關 教會 金泰烈

작년 十月中旬 本紙(九七號)에 이미 보도된바 당시 西南地方會에서 회장安榮俊牧師님의 發案으로 滿場一致可決되자전도부장인 不肖小生에게 視察報告하라는 지령을 받고 제출한 보고서중 몇가지를 기술하야 독자제씨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다.

廣島는 一九四五年八月六日 아침에 原爆一發로 일순간에 사상자 四十여만명을 내었고 그중에는 우리 동포도 수천명이 不幸의 客이 되었던것이다 廣島는 日本中國地方에 수도로 관공서와 일본에 유명한 前廣島고등사범학교所在地로 현재 인구는 二八五·七一二人이라 한다.

시내에 그중 우리 동포는 약一만명이 있고 廣島縣도 約一萬명이 산재하고있다 하는데 아직 우리 재일대한기독교총회에 속한 교회가 없다는것은 큰 유감이 아닐수없다.

八月三十日로 九月二日까지에 廣島市를 中心삼아 三次教會 韓윤周장로님과 협력하야 개인방문, 로방전도와 약一萬장의 한일兩文의 전도지를 배부하고 북은 信者를 찾아 같이 눈물의 기도를 하였읍니다 누구나 廣島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갈망치 않는 자는 없었읍니다.

廣島에 실정은 그곳에 三十五年間 거주하는 신자도 있어 진상을 잘 알게되고 廣島女學院大學學長 松下牧師와 中華民國天津에서 三十七年間 전도하시든 女宣教Miss Beele기타 수명의 인사들을 찾아 인사하였던바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를 찬성하고 있다는것만은 사실이었읍니다.

廣島는 地區的으로보아 西部인「甲斐驛」을 중심삼아 우리 동포가 密集거주하고 있으니 전도를 開始하는때는 반드시 이 지구에서 시작하야만 됨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총중 이 필자도 距今약四十年전에 우연이나마 그곳甲斐町日本메소지스트教會에서 회심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심중에 넘치는 감격을 금치못했읍니다.

廣島에 교회가 꼭 설립되야만 될 이유를 든다면,

一、全世界視野가 집중된 原子都市인것.

二、日本中部의重要首都인것.

三、同胞一萬人을包有한都市인것

四、同胞에 사상이 惡化되여있는것.

五、世界人에 巡禮地임으로 우리在日大韓基督教會를 國際的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다는것.

六、日本民族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認知시킬것.

보고자의 입장에서 그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총회장도가 합심기도로 이 성업이 총회계획대로 실현되기를 간절이 비는 바입니다.

火災을당하고나서

大韓聖書協會總務 任英彬

田兄

평이 동경간다고 작별하던 날이 어제런듯 한데 벌서 겨울도 깊고 성탄도 지나고 얼마 아니있어서 새해도 되게 되었읍니다 빠른 세월이면서도 피로운 세월입니다。

十一월二十七日 밤 일곱시반경에 일어난 큰 불이 二十八일 새벽 다섯시까지 불어 부산의 심장부를 말끔 태우고 말았읍니다 불이 영주동에서 일어나 우편국쪽을 향하고 올라와 큰집 작은 집을 모조리 태웠읍니다 그때 우리 성서공회는 대교로 전차길 이쪽에 있으므로 불이 그 큰 길을 건너와서 붙으리라고는 꿈도 못꾸었읍니다 그러나 불은 그 큰 길을 뛰어 넘었읍니다 실상 우리 성서공회가 타게된 불은 영주 동쪽에서 부터 올라온 불이 아닙니다 우리 성서공회 앞 십자로 건너편에 있는 미군노무처가 불 탈때에 붙은 바림이 영주동쪽으로 불었으니 불이 십자로를 건너오지는 못할것이었읍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불이 시청쪽 우리 성서공회에서 三十미-터쯤 올라가서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에 포위를 당하였읍니다 그리자 엠피들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내쫓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알몸으로 쫓겨 나왔읍니다 성서공회 안에는 다섯가족이 살다가 알몸으로 쫓겨나와 피란한지 얼마 아니되어 성서공회와 그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읍니다。

이 화재로 말미암아 성서공회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二六四,一七七권
종이 五三〇련
제본용클로트ㅋ,〇一〇야-드
비품、도서등

총계 피해액은 一,六三七,六〇二〇환이 됩니다 서울서 쫓겨올때에 성서공회나 나나 가졌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잃어버렸읍니다 그후 나는 성서공회와 내 살림을 조금씩 조금씩 쌓기를 노력하여 지난 十월에는 꽤 되었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의외에 불에 성서공회와 나는 똑 같이 모든 것을 다 태웠읍니다。나도 성서공회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알몸살림이 준비하여 가져왔든 양복과 기구를 말끔 다 태우고 말았읍니다 내가 十월에 만족을 느끼었던것이 죄였던것입니다 모든것을 다 태우고 아니 정신이 아찔하였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만 의지할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성서공회는 예수교서회 집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 주소는 釜山市昌善洞一街三八이외다。총총 이만 그치나이다。

(스톡스목사와 그 가족)

스톡스牧師父子

韓國

盛況裡에마친 關西·中部地方新年集會

예고한바와 같이 관서、중부 양지방 각 교회의 연합 신년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어 많은 성과와 성황리에 무사히 필하였다 한다。

중부지방에서는 名古屋교회를 중심으로 大垣、岡崎、각 교회도 名古屋敎會에 모여 一月一日밤부터 東京기독교 청년회 총무 김우현목사를 강사로 청하여 부흥회로 모였는데 새벽기도회에서 시작하여 낮에는 성경공부、오후에는 청년 집회 또 밤에는 연합 부흥 강연회로 집회마다 百여명씩 출석하였으며 시작부터 六日밤 폐회까지 큰 은혜 아래 많은 성과를 거두고 필하였다 한다。

관서 지방에서는 예고한바와 같이 도사경회로 모였는데 京都、大阪、두 회장에는 날마다 百五十여명씩 두 지방 각 교회에서 모여 도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동지방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로 조직된 내부 강사외에 東京서 吳윤태、金우현 두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시작부터 七日밤 폐회까지 성경공부외에 여러가지 모임에 큰 은혜가 있었으며 성황리에 필하였다고 한다。

講壇

주를 앙망하는자의 새힘

이사야 四十장 30—31 朴命俊

광음여사(光陰如矢)란 고금의 말은 글자 그대로 정확하다 벌써 옛 해는 이미 지나가고 一九五四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희망의 빛은 동천에 떠오른다 우리는 실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희망의 동산에 오를것이며 실패의 눈물을 씻고 성공의 기쁨에들어갈것이다

인생은 새해 시작 첫날부터 선하고도 높은 뜻을 세워 또한 높은 희망을 품고 나서야 할것이며、이 뜻을 굳게 가지고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게 꾸준히 향상의 길을 밟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 이를 능히 실행할수있는 새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 이 새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의 큰 능력과 강한 새 힘」을 얻을수 있다。

우리 인생의 일생은 광풍노도를 거슬러 가는 일엽편주이다 때때로 위험과 실망낙담이 없지 않으나 이사야의「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와 바울의「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것을 잡으려고 못대를 향하여 . . . 좇아가노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위안과희망과 새 힘을 던져 준다 오직 주를 앙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잊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좇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은 사심(私心)이 없는 사람이다。자기의 사욕과 명예는 추호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열중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살며 거기에 능력의 근원을 찾아냄은 존귀한 것이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이라면 그것은 높은 생활이며、여기서 솟아나는 힘은 또한 다함이 없을 것이다。누가복음 二장에 나타난 시므온이란 노인은「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으며 또한「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이 노인은 예루살렘성전에서 예수를 보고 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주재여、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는도다」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의 마음이며 기쁨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이사야 四〇장一절부터)「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다리는 정신이 역력히 드러나 있

親의뒤를이어 宣教師로

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스톡스博士의 四男이 되시는 ㅇㅁ스톡스氏(三十七세)는 사범직전에 부친의 뒤를 이어서 부인과같이 한국선교사로 왔다가 그동안 귀국하여 지냈으나 이번에 그 부인(할론)과 네살 먹는 딸(케틀)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에 당지에 체류중인데 아직 가족은 동경에 두고 단신으로 한국에 가서 대전을 중심으로 전도사업에 종사할터이라고 한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력、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만한 권세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면 감사와 희망이 가슴에 뛰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특히 기독교회의 질 임무와 나아갈 목표、또한 승리의 희망도 이제까지보다 더욱 선명히 비칠때가 왔다 기독자 한분 한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것이며 자기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덕심이 불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앙망할것은 다만 외계에 있는것만이 아니라、우리의 내적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 새롭다 해마다 새로운 계시를 내리신다 구원에 대하여、영의 활동에 대하여 심자가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또한 경험한것은 아직도 유치하다 멀고 먼 전도가 가로 놓여있다 여기에 우리의 앙망할 큰 새 천지가 있다。

예언자는 새 힘에 대하여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새 힘을 얻은 영혼은 죄와 더러움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또한「다름질하여도 고단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른 아침 반시간 하나님과 지내라 그리하면 한 날의 걸음은 튼튼할것이다 주일에 참된 신령안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육일동안의 싸움에 피곤치 아니하리라。위에 있는것을 찾고 주를 앙모하라 그리하면 일생 분투하여도 그 힘이 쇠하지 않을것이다。

한국요리법

(4) 떡국 (겨울철)

재료 (세그릇)

흰떡 얼가래 계란 하개
누육 반근 호추가루 조금
간장 한종지 깨 깨소금 한큰사시
파 두뿌리 기름 조금
마늘 한쪽 물 오홉

1 고기는 살로만 가늘고 얇게 썰어서 산적을 만들어 구어놓고(우육 산적 만드는 법을 참고할것)
2 얼기 부분으로는 맑은 장국을 끓이고
3 흰떡은 한푼 두께로 비솟비솟 썰어 놓고
4 계란은 황백미를 각각 얇게 부쳐서 골패쪽 같이 썰어놓고
5 상에 놓기 바로전에 펄펄 끓는 국에다가 썰어놓은 떡을 넣고 떡이 떠오르기까지 끓여서
6 국물에 떡이 떠오르거든 합에나 대접에 퍼서 담고 산적을 어서 놓느니라

(5) 생떡국 (사철)

재료 (세그릇)

쌀가루 오홉 파 두뿌리
정육 반 반의바근 마늘 두쪽
간장 한 한종지 기름 조금
호추가루 조금 물 오홉
깨소금 한큰사시

1 쌀가루를 익반죽을 해서 도토리 만큼씩 동글게 빚어 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만 채쳐서 양념을 해서 볶아 놓고
3 남은 고기로는 잘게 썰어서 갖은 양념을 해서 맑은 장국을 끓여넣고 (맑은 장국 끓이는 법을 참고)
4 국이 펄펄 끓을때에 떡을 넣고 한참 더 끓이면 떡알이 국에 따올리 올것이니 그릇에 퍼고 고기 볶은것을 얹어서 놓느니라

무섭지 않다 (香氣)

어떤 아이가 아버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갑자기 풍난이 일어나서 배는 멀리 떠나려 간다 그래도 그 아이는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배에 탔던 사람이「무섭지 않으냐」물어본즉「조금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배 질을 하시는데 무엇이 무서워요?」

이 세상이란 배를 저이가는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 선장은 그리스도이신것을 잊지말자。

일본국민에게의 성경영포

전후一千四百三十七万권

대전 후 일본국민에게의 성경의 영포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一九四九年에 一、九三五、六七八권이었던 것이 一九五〇年에는 五〇六六五三〇권、五一年에는 五五〇五〇一四권、……이렇게 미영 양국의 다음 가는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밖에 회중 성경 연맹、같은 단체에서 무료 영포한 것을 합하면 숫자는 월씬 증대될 것이라 한다。(基通)

春☆新☆賀☆謹

在日大韓基督教
熊本教會
牧師 安榮俊
執事 鄭豐作
許光植
裴順姬
李光月

勉勵青年會
會長 安學道
傳道部長 許光守
知育部長 李德守

在日大韓基督教
福岡教會
長老 崔永模
執事 李京得
金得寶
金基炫
金致炫
金仁順
南周也

金光均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三街八

小倉金屬株式會社
社長 朴南在
小倉市砂津
電話(5)七〇五番

清宮允伯
東京都北區西ヶ原町四丁目五番地
電話(91)四五二三番

貿易商
株式會社 天友社
社長 全澤瑞
東京事務所 責任者 金瀅次
本社 特別市中區大平路一街六一
東京事務所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一丁目二
ホテル東京四三二

K・K・モナミ
許弼奭
東京都新宿區歌舞伎町八七九
電話(35)〇〇五七二八〇〇番

한글교실 (제 34 시 간)

張 曉

(7) 받침의 소리값(音價)-2

지난 시간에는 받침으로 쓰인 닿소리가 홀소리에 이어나지 않을 때는 그 소리값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밖에는 더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소리마디(音節)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딴 소리처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닿소리의 이어바침(接變)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음성학(音聲學)에서는 닿소리(子音)를 그 소리나는 바탕으로 보아 울림이 있는 소리(有聲音)와 울림 없는 소리(無聲音)로 가릅니다. 곧 „ㄱ, ㄷ, ㅂ, ㅅ, ㅈ……" 따위는 울림 없는 소리(無聲音) 요 „ㄴ, ㄹ, ㅁ, ㅇ" 은 울림 있는 소리(有聲音)입니다. 그래서 울림 없는 닿소리의 받침 다음에 곧 울림 있는 닿소리(有聲子音)가 따르게 되면 울림 없는 닿소리(받침)가 그 울림 있는 닿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울림을 띠게 되므로 그 같은 자리에서 나는 울림 있는 소리로 달아나게 됩니다. 곧 혀의 뿌리로 뒷입천장을 막기만 하는 „ㄱ" 소리는 같은 혀 모양을 하고 코로 소리가 울리어 나는 „ㅇ" 소리처럼 나며, 혀끝을 이틀에 대고 내는 „ㄷ" 소리는 같은 혀 모양으로 코로 소리가 울리어 나는 „ㄴ" 소리처럼 나며, 또, 위아래의 입술을 붙이어서 내는 „ㅂ" 소리는 같은 입술 모양으로 코로 소리가 울리어 나는 „ㅁ" 소리처럼 납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말소리로는,

„먹는다" 와 „멍는다"

„닫는다" 와 „단는다"

„잡는다" 와 „잠는다" 가

서로 다름이 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몇 가지 법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ㄱ) ㄱ(ㅋ, ㄲ, ㄳ, ㄺ)" 받침 소리가 „ㄴ, ㄹ, ㅁ" 위에서 날 때에는 „ㅇ" 과 같이 남.

먹는다(멍는다) 낚네(낭네)

흙내(흥내土嗅) 읽네(잉네)

백량(뱅량百兩) 떡메(떵메)

부엌문(부엉문廚口)

(ㄴ) ㄷ(ㅅ, ㅆ, ㅈ, ㅊ, ㅌ)" 받침 소리가 „ㄴ, ㄹ, ㅁ" 위에서 날 때에는 „ㄴ" 과 같이 남.

받낸다(반낸다受使) 잇는다(인는다繼) 있네(인네有)

젖내(전내乳嗅) 쫓는다(존는다) 끝날(끈날末日)

맏며느리(만며느리長子嫁)

젖맛(전맛乳味) 꽃만(꼰만)

(ㄷ) „ㅂ(ㅍ, ㄼ, ㄿ, ㅄ)" 받침 소리가 „ㄴ, ㄹ, ㅁ" 위에서 날 때에는 „ㅁ" 과 같이 남.

합니다(함니다) 앞날(암날)

밟는다(밤는다) 읊네(음네)

압력(암력壓力) 밥물(밤물)

값만(감만 價)

(ㄹ) 또 울림 있는 „ㄴ" 받침도 „ㄹ" 위에서는 ㄹ 을 따라서 „ㄹ" 로 나고 맙니다.

신라(실라 新羅)

전라남도(절라남도全羅南道)

닿소리의 이어바침(接變)은 이 밖에도 있으나, 쓸 자리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미룹니다.

外國外交官이 본 李承晚大統領 (2)

前駐소 윌리암·씨·볼렛트 氏 美大使

一九〇四年 露日戰爭이 이러나자 李博士를 中心으로 獨皮되였던 革命同志들이 政府를 支配하게 되였었다 獄中生活七年을 겪고난後 當二十九歲에 석방되였을뿐 아니라 政府의 特使로써 美國에 파견되었다 그의 使命은 當時 日本이 韓國을 먹을려는 野望이 있는것을 보고 포츠마우스平和會議에서 루즈벨트大統領에게 이 野望을 防止하도록 努力해달라는 說得을 하기爲함이었다 그러나 그의 說得이 水泡로 도라갔고 韓國은 日本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든것이다 李博士는 美國에 체류하야 새로운 西洋文明을 硏究하게 되었으며 첫째로 와싱톤大學에서 學士學位 다음 하-버-드大學에서 (MA碩士學位) 그리고 다시 루리스톤大學에서 哲學博士學位를 얻었다 물론 完全하게 英語에 能通할수있었고 또한 깊히 美國사람을 理解할수가 있었다。

그는 國際法을 專攻하였다 루리스톤大學에서는 當時同大學總長인 우드로우 윌손氏를 존경하였고 또한 同氏는 李博士를 「장차 韓國을 救援할수있는 青年」이라고 서슴치않고 소개하였던것이다。

一九一〇年 日本이 正式으로 韓國을 倂合하고 韓國을 合倂하였다 李博士는 이제야말로 그가 本國에서 지기 나라의 獨立을 爲하여 싸워야할 때가 왔다고 결심하였으며 YMCA의 學生敎事로 歸國하여 監理敎學校의 敎員으로 봉사하는 한편 韓國基督敎學生運動을 指導하였으며 政治的地下工作을 하였든것이다。日本사람들은 그가 韓國을 침략하는데 크나큰 방해가 된다고 하여 日本의 秘密警察이 그의 뒤를 밤낮 따르기 바쁨 지경이었다。一九一二年 그의 몸에 탄압이 심해짐으로 그는 스스로 당시에 미나포리에서 열린 監理敎世界會議에 代表로 가버렸든것이다 一九一三年 그는 또한 在하와이 韓國人들의 敎育및厚生 宗敎事業에 從事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韓國人敎會를 만들었고 暗暗裏에 韓國獨立運動을 發展하였던것이다。

美國이 世界第一次大戰을 끝마친뒤에 李博士는 그의 친구인 윌손氏가 임직부터 꿈꾸고 있든 世界平和會議를 實現시킬수 있을것이라고 確信하였기 때문에 一九一八年 가을에 그는 와싱톤에 가서 파리平和會議에 韓國獨立을 제안하기를 要請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윌손氏는 當時 日本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때문에 그의 要請을 듣지 않었던것이다。

그리하야 李博士는 韓國에 있어서 소극적인 운동으로 美國과 國際連盟으로 하여금 獨立國家로써 認識받게 함것을 決心하였다 韓國에있는 그의 同志들은 金錫을 通하여 獨立宣言을 發表하고 「日本人에게 독립을 말하지말것을 民衆에게 서약케 하였다。

一九一九年三月一日 金錫을 통하여 이 獨立宣言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을수가 있었으며 禁止되었던 自己나라의 國旗를 휘날리면서 萬歲소리 金錫을 뒤따를었으나 日本人에 대한 暴行은 하나도 없었다 日本軍警들은 自己나라의 主權을 부르짖는 民衆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加하며 총칼을 썼으며 無數의 韓國한 民衆의 피가 一時에 江土를 물드리게 하였든것이다 約七千名이 학살 당하였으며 二十萬명이 체포감금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部世界에서는 이 잔인무도한 事件을 등한시 하였든것이다。

그러나 그當時의 愛國志士의 어공한 피가 새로운 獨立運動의 용감한 國士들을 북돋아 주었으며 當年 가을에 츄國에 있는 韓國의 指導者들이 上海에 모임듯이 모여왔든것이다。 그리하야 그곳에서 그는 大韓民國臨時政府를 創立하였으며 初代大統領으로 選任되였던 것이다。 (계속)

(小說 새벽종 今號休載)

漢詩

送舊迎新 又一朞
人間旅路 復深疑
曉空遠雁 飜君羽
殘月高堂 傳我詩
孤室自閒 祈禱客
隣庭群樂 弄球姬
何嘆異境 逢佳節
天父施恩 萬事禧

「題」挽歲節

「韻」支字部

一九五四年元旦

東京에서

尹官炳

「신년」 윤관병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여 또 한돌이 되니,
인간이라는 나그네의 길을
다시 깊이 의심하노라。
새벽하늘 먼 기러기는 너의
날개를 날리여서,
쇠잔한 달 높은 집에 나의
시를 전하여다고。
외로운 방에는 스스로 기도하는 나그네가 한가하고,
이웃들에는 못「하네이다」치는
소녀들이 즐거하는구나。
어찌 다른 나라에서 명절을
맞이함을 탄식하리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만사가 복이 되도다。

謹☆賀☆新☆春

晒水飴製造多量生産
トラック
小型自動車 運搬業

鄭得龍

大垣市世安町二三四〇番地
電話 二四四二番

謹賀新年

株式會社 柳韓洋行
다—지車 總代理 柳韓K모—터스

柳韓産業株式會社

取締役會會長 柳一韓
日本駐在員 朴文福

東京都港區赤坂青山南町六丁目一二〇番地
電話 (40) 〇〇三二番

ホテル千代田

東京都千代田區九段一ノ一
ホテル千代田
電話 (33) 八二二五番
九四二七番

洋服地・人絹織物・ビニール製品
雨具類・カバン・袋物・各輕帶品
雜貨

卸

輸出商

金澤商店

店主 金沢滿

住所 下關市伊崎町五三ノ八番地
電話 (2) 三七〇四番
取引銀行 帝國銀行下關支店

輸出向各種衣服地
高級洋和雜貨品
都散賣

松山商店

下關市竹崎町三ノ八九
電話 (2) 二八〇一番

輸出入業

三剛物産株式會社

代表取締役 金炯吉

東京都港區芝西久保巴町三番地
電略 シバミツダイヤ
電話 (43) 七五四三
六八五三
五二〇〇